

건강증진 방콕 헌장

Bangkok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남 은 우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1. 배경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방콕에서 제6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회의(the 6th Glob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를 개최했다. 이 제6차 회의는 1986년도에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 제1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회의(이 회의에서 오타와 헌장이 발표되었다)에 이어 6번째로 열리는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회의이다.

오타와 회의 이후 제2차 회의는 1988년에 아델라이드에서, 제3차는 1991년에 쉰스빌에서, 제4차는 1997년에 자카르타에서, 그리고 제5차는 2000년에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다. 오타와 회의가 있는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화의 영향, 인터넷의 출현, 공중보건 영역에의 민간기업 참여, 믿을 만한 증거를 근거로 한 연구방법(EBM)과 비용효율성의 강조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6차 국제회의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고, 21세기 건강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기회를 좀더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의 제6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회의는 방콕의 유엔 빌딩에서 5일간 개최되었는데, 건강 결정 요소를 다루기 위한 실천을 위한 정책과 파트너쉽 (Policy and Partnership for Action: Addressing Determinants of Health) 이 회의의 주제였다. 이 회의에서는 건강증진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논의하여, 이번 회의의 마지막 날인 8월 11일에 발표된 건강증진에 관한 방콕 헌장 (Bangkok Charter on Health Promotion)은 오타와 헌장 이후 20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그리고 향후 건강증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세계화 시대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콕헌장

▶ 서론

방콕 헌장은 건강증진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건강 결정 요소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기르는 일뿐만 아니라 건강과 건강평등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파트너십은 전 세계적 발전과 자국 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방콕 헌장은 건강증진을 위한 오타와 헌장에서 제정한 건강증진의 가치, 원칙, 행동 강령, 그리고 오타와 회의에 뒤이은 국제회의에서 추천된 전략에 바탕을 두고 이를 보완하고 있다. 방콕 헌장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의 활동가들과 실무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며, 세계 보건 총회를 통해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방콕 헌장은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단체, 그리고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모든 수준의 정부와 정치가들을 모두 포괄하며, 시민 사회, 민간기업, 그리고 국제 기구들까지도 포함한다.

▶ 건강증진

유엔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상태가 주는 즐거움은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권리라고 인정한다. 건강증진은 이런 중요한 인권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긍정적이고 총괄적인 개념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를 뜻하며, 정신적, 영적인 안녕을 포괄한다. 건강증진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과 그 결정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이로 인해 좀더 건강해지는 과정이다. 이는 또한 공중보건의 주된 기능이며 전염성 질병과 비 전염성 질병,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다른 요소들을 척결하는 데 기여한다. 건강증진은 전반적인 보건 향상과 인간 발전에 있어서 효과적인 투자며, 건강 불평등과 성적인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 건강 결정요소에 대한 대처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은 오타와 헌장의 제정 이래 괄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다. 국가 내, 국가간의 불평등 증가, 새로운 소비와 커뮤니케이션 패턴, 상업화, 환경 위기, 도시화 등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다. 급속한 사회 변화는 때로 인간

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어서 작업 조건, 학습 환경, 가족 패턴, 커뮤니티 문화와 사회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 패턴의 발전과 인구통계학적 전환 또한 이러한 변화에 한 몫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은 이러한 발전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받으며, 어린이들은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되어가고 있고, 소외 계층, 장애인, 그리고 원주민들의 소외 또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화는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가령, 전 세계적 통합 관리를 위한 향상된 메커니즘이나 발전된 정보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일 등을 통해서 협력이 가능하다. 건강증진 전략은, 글로벌화로 얻을 수 있는 보건 혜택이 공정하고 극대화되는 것을 보장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완화하는 정책과 파트너 십을 운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초국가적인 건강 위해(危害) 요소에 대처할 수 있다.

글로벌화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은 반드시 정부의 각 부처간, 유엔 단체와 민간기업을 포함한 기타 단체들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동의안과 조약을 지키도록 할 것이며, 투명한 정책 운영과 이에 대한 책임까지도 강화시킬 것이다. 밀레니엄 발전 목표들을 모두 달성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노력은 건강증진 실행의 중요한 초석이 된다.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러한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건은 점점 더 발전의 중심에 놓이고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다.

▶ 글로벌 시대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략

좀더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조치, 폭넓은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건강증진에는 입증된 효과적인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좀더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과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 인권과 연대에 기초한 보건에 대한 지지
- 건강 결정요소에 대처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조치 그리고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 정책 개발, 리더십, 건강증진 실천, 지식의 전이 및 연구,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 고양 등을 위한 능력 신장

- 위협으로부터 최상의 보호를 보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과 안녕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규제와 정책 입안
-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공적 기관, 사적 기관, 비 정부 기관(NGO) 그리고 시민 사회와의 파트너십 및 연대 형성

▶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노력

- 건강증진을 전 세계적인 발전 안건의 핵심이 되도록 한다.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보건복지에 있어서 부자와 빈자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강증진과 집단 보건 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강력한 합의가 필요하다. 건강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의 관리를 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통상, 제품,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 전략이 가져다주는 해악에 대처해야 한다. 건강증진은 전쟁시와 분쟁의 상황도 포함하여 국내외 정책과 국제 관계에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시민사회, 민간기업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for Tobacco Control)과 같은 현존하는 조약들을 예로 삼아 나아갈 수 있다.

- 건강증진을 정부의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할 핵심사안으로 만든다.

건강은 사회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낮은 보건 수준과 불평등의 문제를 긴급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보건 관계 부처는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 결정요소를 다루는 책임은 정부 전체에 달려 있으며, 보건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의 실천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결정요소들을 다루는 데 진전을 바란다면, 정부 내의 통합적인 정책 방향과 시민사회, 민간기업과의 연대 노력이 필수적이다. 지역 및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는 건강과 보건 관계 부처 안팎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건강증진에 지속적인 재정 보조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형평성에 입각한 보건 효과 평가나 부처간 국내 혹은 지역 보건계획 등을 이용해 보건 정책과 입안의 결과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 건강증진을 지역사회와 시민 사회의 주요 초점으로 삼도록 한다.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는 때로는 건강증진 문제를 제기하고 이끌어 가는 데 선두역할을 한다. 이들에게 권리, 자원, 그리고 기회가 제대로 주어져야 이들의 기여가 확장되고 지속된다. 이러한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은 좀 덜 발전된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조직적이고 자생력 있는 지역사회는 자체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정부와 민간기업이 보건 정책과 실천의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상품, 서비스, 주식을 선택함으로써 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대중 커뮤니티 프로젝트, 시민사회 집단, 여성 단체 등은 그들이 건강증진 정책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단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보건 전문가 협회들 또한 여기에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다.

- 건강증진을 훌륭한 기업 활동의 필요조건으로 만든다.

민간기업은 지역의 독특한 환경, 국내 문화, 자연환경 및 부의 분배 등을 통해 대중의 건강과 건강 결정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민간기업은 다른 고용주들이나 비공식 부문처럼 일터의 보건 안전 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인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의 건강과 안녕을 향상시키는 데 책임진다. 이들은 또한 지구 생태계 변화와 관련된 좀더 넓은 전 지구적 차원의 보건 문제에 기여하기도 한다. 민간기업은 이들의 실천적 행동이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자는 취지의 지역, 국내 그리고 국제 법규와 협약을 따르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과 공정 거래는 기업활동의 좋은 예가 되며, 이는 소비자와 시민사회, 그리고 나아가 정부의 다양한 장려 정책과 법규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건강증진 정책의 실행을 위한 전 세계적 서약

지금까지 언급한 다양한 실천적 노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존하고 있는 증명된 전략들을 좀더 잘 적용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혁신적인 반응을 잘 이용해야 한다. 파트너십, 협력관계, 네트워크, 협동은 대중의 건강을 향상시키자는 공동 목표와 단합된 행동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단체를 한데 묶을 수 있는 훌륭하고도 가치 있는 방법이다.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기업은 각기 독특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다. 건강의 근본적인 결정요소에 좀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협동을 통해 자원을 좀더 효과적이고 효

울적으로 사용하여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오타와 현장을 채택한 이후로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국내적, 국제적 결정들이 상당히 많았으나 항상 실행된 것은 아니다. 이번 방콕 회의의 참가자들은 세계보건기구와 회원국에게 정책 결정과 실행의 격차를 줄이고, 정책과 파트너십을 현실화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리더십을 요구할 것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세계보건기구가 다른 기구들과 협력하여 자원 배분, 정책 실천, 적절한 지표와 목표를 통한 활동 감시, 진전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와 같은 활동을 회원국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엔기구들이 건강을 위한 국제협정을 발전시키고 실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 봐야 한다.

이번의 방콕 현장은 전 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실천과 더불어 건강증진을 위한 전 세계적 파트너 십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태국의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건강증진 국제회의에 참가한 우리들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필요한 자원, 정책, 실천을 옹호하는 이러한 노력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서약하는 바이다(2005년 8월 11일, Bangkok)

i)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은 1995년도에 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건강증진기금의 확보 등 제도적인 장치 구축에 최선을 다한 국가로 평가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확대 개편에 의해, 각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설립되어, 건강증진사업이 지방분권형 방식으로 일부 전환되고 있다.

이번의 방콕 현장의 핵심은 건강증진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건강 결정 요소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역량을 기르는 일뿐만 아니라 건강과 건강 평등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파트너 십이 전 세계적인 발전과 자국 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이번 방콕 현장은 건강증진을 위한 오타와 현장에서 제정한 건강증진의 가치, 원칙,

행동 강령, 그리고 오타와 회의에 뒤 이은 국제회의에서 추천된 전략에 바탕을 두고 이를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한국의 건강증진사업에 방콕 헌장의 정신이 어떻게 적용되며, 아울러 좀 더 효율적인 사업화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